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간담회 가져

법제처, 한국전통문화전당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적·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성 강조

지난 15일 법제처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한 후 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전통문화 생활화와 세계화를 비전으로 한지·한복·한식·전통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사업과 공간을 운영 중인 전당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지·한복 및 목공 분야 전문가, 관련 업체 종사자, 전당 관계자 및 전주시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법적·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령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과, 영세한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전통문화를 표준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통문화를 보존 및 계승함에 있어 체계화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다자



지난 15일 법제처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한 후 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인, 산업, 기술,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전통문화산업은 다각도로 법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법제처는 이번에 나온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당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통해 향후 전통문화 진흥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지역 문화 발전 협력 '맞손'

전주대-전북박물관미술관협의회,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수퍼스타칼리지는 지난 15일 대학 본관 124호에서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와 상호 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수퍼스타칼리지 이정희 학장,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박현수 회장 등 두 기관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문화 콘텐츠 상호 공동 연구 및 개발 △학술연구 관련 프로그램 상호 협력 운영 △기타 전북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관련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정희 학장은 "이번 협약이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전북의 역사 문화적 전통과 유산이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학술 성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두 기관이 전북의 역사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해 새로운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면서 "전주대학교의 글로벌 대학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공격적 마케팅으로 방문객 유치 나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태권도원 업무 제휴 설명회 가져

"지난 제휴기간 동안 우리 연구원 워크숍 및 회의 등을 위해 직원들이 태권도원을 방문했고 매우 특색 있는 장소에서 일과 휴식을 취하는 등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업무 제휴를 통해 올해도 태권도원에서 다양한 기관 행사를 갖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양태훈 팀장)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16일 오후 태권도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연구 관련 10개 공공기관이 함께하며 업무 제휴 프로그램 소개와 태권도원 내 회의실 및 연수원 객실 등의 시설 확인,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 전당대 및 상징지구 투어 등의 일정을 가지며 태권도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업무 제휴 프로그램은 70만 평 청정 자연에

위치한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수련과 태권도 상설공연, 체험관·국립태권도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즐기면서 업무 수행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 기관 행사, 워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 유치를 위해 시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업무 제휴 기관에 대해 태권도원 방문 및 행사 시 입장료와 부대시설, 대관료 등에 대해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023년에 31만 명이 태권도원을 찾는 등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완벽히 회복한 만큼 올해는 공공기관과의 제휴를 비롯해, 인바우어행사 캠퍼서, 학생 단체 유치,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 종목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전년도를 뛰어넘는 방문객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태권도원에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다"며 "제휴 프로그램을 포함해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태권도원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태권도진흥재단 홍보마케팅부(063-320-0129)로 하면 된다. /무주=정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16일 오후 태권도원에서 개최했다.

# 완주군, '취학 전 천권 읽기' 로 어린이 독서운동 활성화

완주군이 오는 3월부터 지역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취학 전 천권 읽기' 사업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 독서운동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취학 전 천권 읽기'는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영유아 시기인 만 4세에서 만 7세까지 하루에 1권씩 3년간 1000권의 꾸준한 책 읽기로 평생독서습관을 형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중앙도서관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은 현재 완주군 공공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까지 확대돼 활발히 운영 중이며, 700여 명의 어린이와 양육자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역 대표 유아독서운동으로 자

리매김하기 위해 완주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책꾸러미 배달서비스, 추천도서 목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군 유아교육기관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0일 중앙도서관에서 '유아교육기관 관계자 대상 취학 전 천권 읽기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영방법 등에 대해 안내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참여는 19일까지 완주군 도서관 사업소 도서관정책팀(063-290-2589)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단체는 2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11집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11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와 관련한 담론 선도와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한다. 지난 2019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씩 발간되며, 2023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공존의 인간학' 제11집에서는 '경계 밖의 인간 무리'라는 주제로 기획논문 4편과 일반논문 9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 13편의 논문, 그리고 특별기고문 1

편 등 총 14편이 수록됐다.

기획논문에서는 김기현(한국침례신학대)의 '디아스포라, 속명에서 사명으로'에서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내포하는 '유배'에 대한 두 관점인 '속명'과 '사명'에 대한 탐구했다.

일반논문은 사회학, 식문화, 역사학(중국근세사), 영상문화, 영화사, 철학(동서비교철학, 한국유기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가 수록됐다. 이 외에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총리의 '아시아 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일·한 협력을 통한 미·중 대립의 제어'가 특별 기고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